

# <비교종교>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 <이슬람교(Islam)>

## 1. 이슬람교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이슬람어: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

그리스도교·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전지전능의 신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었으며, 유대교·그리스도교 등 유대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유일신 종교임을 자처한다. 유럽에서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메트교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위구르족을 통하여 전래하였으므로 ‘회회교’ 또는 ‘칭진교’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또는 ‘회교’로 불린다.

(1) 알라와 코란(쿠란):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는 다신교 시대부터 메카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마호메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내세웠다. 알라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와 동등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알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관대하고 자애에 넘쳐 잘 용서하고, 잘 들어 주고, 잘 보아준다.

알라는 진리이며 빛이며 “동도 서도 알라의 것, 어느 쪽을 향해도 알라의 얼굴은 거기에 계신다. 골고루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무소부재와 전지전능코란 2:11)고 한다.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호메트가 말한 내용으로서,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코란>은 마호메트에게 계시된 바를 해설이 없이 모은 것이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후세 학자들이 쓴 많은 주석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법학·신학의 최고 근원은 역시 <코란>에 있다.

(2) 이슬람의 근본신조: 이 가르침의 정식 명칭은 ‘알 알이슬람’라고 부른다.

그것은 “유일 절대적 신, 알라의 가르침에 몸을 맡긴다”는 말로서 즉 ‘귀의’(Faith, 종교적 절대자나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함)를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명확한 아랍어로 계시되었고 마호메트도 이것을 아랍어로 전달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것이 이슬람교의 신조이며, 후에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자(라수르)이니라”가 추가되었다. 이 성구를 외는 일은 신도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알라의 가르침을 모은 <코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알라와, 최후 심판의 날과 천사들과 여러 경전과,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이만’이라고 한다.



## II. 코란(Koran)

이슬람교의 경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19년경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부터 632년 죽을 때까지의 계시와 설교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40세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근처의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코란>이란 아랍어로 ‘읽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계시받은 마호메트의 말은 초기의 사도들에 의해 기억되어 낙타의 골편이나 야자의 엽피, 암석의 파편 등에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승이 다양해져 그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코란>의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루가 시도하여 본격적인 결집은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646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란>은 당시 정리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III. 마호메트(Mahomet)

고대 아라비아의 예언자(nabi)· 이슬람교의 창시자.

아라비아 원음으로는 무하마드(Muammad)라고 한다.

이슬람교도는 보통 라슬라(Rasllh), 즉 ‘알라의 사도’라고 부른다.

마호메트의 하심 가문은 메카의 명문인 쿠라이시 부족의 일원이었으며, 부친 압둘라가 일찍 죽었으므로, 마호메트는 조부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조부의 사망 후로는 숙부 아브 탈리브의 보호를 받았다. 청년시절 그는 대상(사막이나 초원에서, 낙타나 말에 상품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을 따라 시리아 등지를 왕래하였으며, 그 사이 유력한 상인의 미망인인 하디자 밑에서 일하는 도중, 마호메트의 성실함에 큰 감명을 받고 그녀가 구혼을 하였다.

595년 마호메트는 십여 세나 연상인 하디자와 결혼, 3남 4녀를 낳았으나 남자는 모두 일찍 죽었다. 610년경 마호메트가 40세 되었을 때, 그는 세속적 생활에서 이탈하여 메카 교외의 히라산에 있는 동굴에서 명상생활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해 처음으로 천사 지부릴(가브리엘)을 통하여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되어, 드디어 그는 새로운 교를 창시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부인 하디자가 최초의 신도가 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전까지의 다신교를 부정하고 유일신인 알라 앞에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메카 지배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613년경 포교활동 개시 후 처음으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마호메트는 교단을 이끌고 여러 차례 메카군과 싸워 630년 1월에는 마침내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을 알라의 신전으로 바꾸어놓았다.

얼마 후 아라비아인의 태반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광대한 아라비아 지역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의 꿈은 종래의 부족단위의 사회를 하나의 이슬람 교단으로 바꾸어,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전체 교도를 한 형제로 삼는 평화스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632년 6월 8일 아내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메디나의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 IV. 알 라

이슬람교의 유일신.

이슬람 이전에도 일신교(一神敎)의 관념이 있어 ‘알라신도 지상신(신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서 숭배된 일이 있었으나, 아라비아인이 특별히 직접 숭배하지는 않았다.

‘알라’의 어원은 신을 뜻하는 ‘일라흐(ilah)’에, 정관사 ‘알(al)’이 붙은 ‘알일라흐’에서 온 것이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처음으로 그 말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슬람의 유일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처음에 다른 신들도 인정하였으나, 나중에는 모두 부정하고 알라만을 신으로 보았다.

이슬람의 신조고백에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란>에도 알라는 유일의 신, 세계의 창조자, 전지전능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알라의 의지와 결정과 심판은 절대적이고 위협적이지만, 한편 그는 대자대비한 덕을 갖추고 있고 초월적이면서 가장 친근한 존재라는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

#### V. 이슬람교의 내세관

이슬람에서의 인간의 죄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즉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나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죄나 불의는 알라 앞에서 참회하면 알라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움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온갖 해악으로부터 알라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관용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가 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나 죄, 불의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써 용서할 수 있다는 이슬람의 종교적 이념에서다.

이슬람교의 내세관을 이루는 다른 한 내용은, 말일과 더불어 도래하는 최후심판에 관한 문제다.

말일이나 최후심판에 대한 믿음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들 두 종교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말일(혹은 종말일)에 이르러 각 영혼이 다시 이전의 육신과 합해져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상정되는데, 이것을 최후심판이라고 한다.

‘꾸르안’은 말일과 최후심판의 정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말일에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천지이변이 일어나 하늘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며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사람들과 진(정령)이 재판석에 소집된다. 그러면 각자의 행위에 관해 천사가 증언하고, 그 행위를 저울에 달아 칭찬 받은 자에게는 행위 기록이 오른손에, 영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는 행위 기록이 왼손에 주어진다.

저울축의 경중에 따라 선악이 결정되는데, 오른손 쪽이 무거운 사람이 생전에 신앙심이 돈독하고 선행을 많이 베푼 자다.

말일이 언제 오는가의 질문에 무함마드는 “신념이 사라졌을 때 말일을 기다리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알라만이 아는 일로서, 예정된 때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온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의 내세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부활론이다.

경전 ‘꾸르안’의 제75장은 ‘부활의 장’으로서 부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활론도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취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나 이슬람교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활이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모든 영혼이 이전에 죽었던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 살아난다는 뜻이다. 부활하면서 선인(善人)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천당(갓나, 피르다우쓰)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惡人)은 지옥(자핫남, 자힘)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경전 ‘꾸르안’에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와 천당의 정경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신을 경외한 선남선녀, 신을 섬긴 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자, 마음이 관대한 자, 신을 위해 고뇌하고 박해를 받은 자, 신을 위한 성전(聖戰)에서 순교한 자, 이를테면 ‘칭찬을 받은 자’들만이 천상의 낙원이자 평화의 집인 천당에 들어가 영주하게 된다.

그들은 흐르는 강물가에서 신을 찬미하면서 비단으로 꾸민 잠자리에 들고 진수성찬을 즐기며 눈빛이 고운 소녀와 순결한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열락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천당은 8층 하늘의 7층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악담이나 거짓말이란 전혀 없고 다만 축하의 말만 있을 뿐이다.

천당의 맨 위에 알라의 보좌가 설치돼 있다. 기독교의 천당과 흡사하나 더 호화롭다.

### <세계종교현황>

세계인구 80억4천만명 (15세 이상 60억4천만명)						2023년		
개신교	12억4천	15.4%	카톨릭	13억6천	16.9%	무슬림	19억	23.6%
힌두교	11억	13.7%	불교	5억	6.2%	유대인	1500만	0.2%
중국민속	4억5천	5.6%	일반민속	3억	3.7%	무종교	9억	11.2%

# <안식일교>

##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제칠일 안식일을 주장한 베이츠(Joseph Bates), 하늘 성소를 말한 에드슨(Hiram Edson), 안식일교의 근원이 될 밀러(W. Miller) 그리고 오늘의 안식일교를 이룩한 화이트(Elleng White)가 있으며 다니엘 9장에 근거한 연대 계산의 2300주야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사심판의 교리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서 기독교와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으로 나무랄 데 없는 종교단체이나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 성 서 관

안식일교인은 '엘렌지 화이트'를 여선지자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그녀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화이트'를 성경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범주에 넣었다.

그들은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성경의 정경만큼의 권위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성경으로 그녀의 저술을 심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녀의 저술을 '주님의 계시를 받은 권면', '남은 교회의 증표', '마지막 날을 위한 교훈' 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한 성경의 권위에 관한 주장은 다시금 효력을 잃고 만다.

즉, 화이트의 저술을 성경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입증하는데 그녀의 저술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양상이 되었다.

### 2. 신 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안식일교인들은 기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물몬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성품과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안식일교는 칼빈주의의 견해를 아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교리문답) 그러나 누가 믿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러한 '예지 예정적 견해'는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의 중간쯤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알마니안과 닮았다.

### 3. 인 간 관

인간의 속성에 대한 안식일교의 교리에 있어 대부분은 기독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본래 죄가 있고 죽은 속성을 지닌다. 영생은 그리스도안에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된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므로써 기록하고 선한 존재였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는 모든 이들에게 유전되었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받는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기독교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제의를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라는 것이다. 즉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 주권적인 은총이라는 칼빈주의의 입장을 배격하고 "사람의 자유선택"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알미니안주의적 입장이다.

#### 4. 죄 론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대대로 유전되었다는 원죄에 대한 것이 안식일교에서는 분명치 않다. 속죄를 위해 필요한 무한정한 보상은 '죄'가 '엄청난 죄악'임을 설명하고 있다. 화이트는 불순종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은 타락했으며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완전히 예속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해야만 된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죄에 항거하거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불신자일 경우 죄도 분명히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믿음은 중생에 선행할 수도 있고 또 선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5. 속 죄 론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도 확인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안식일교인들은 십자가의 구속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탄에게 지운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사해서 심판하심으로 될 것이며 거기에서는 이미 믿는 신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사죄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의 죄들이 기록에 남아 있을 때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 되고 그의 선행의 기록은 하나님의 기념 책에서 지워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6. 기 독 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안식일교인의 견해도 기독교와 거의 유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기적이 인정되고 있으며, 구속적인 죽으심, 부활, 승천 및 중보가 모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안식일교도들은 성경의 미가엘(Michael)이라는 이름을 피조된 천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에 계시는 성자에게 적용시킨다.(교리문답) 따라서 이 이름을 지음받기 전의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몰몬교도의 가르침과도 구분된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지 않았으며 속죄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안식일교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단어를 과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는 계속 속죄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속죄를 하고 있다'는 표현대신에 '속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 속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하신 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 7. 구 속 관

안식일교에서는 '죄사함'과 '죄의 말소'를 구분한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 그는 죄사함을 받지만, 그의 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의 '사함받은 죄'는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가 사함받은 뒤에도 천상의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죄의 말소는 그 뒤의 행위와 태도가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순간에 일어날 수는 없었다. ※ 성경은 심판 때까지 죄악이 남아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죄는 언제 말소되는가? 안식일교는 주장하기를 신자들의 이름이 조사심판대에 오르기까지 그들의 죄가 말소되지 않으리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생애를 마칠 때도 행위의 기록이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은 그들의 사후에도 살아 썩어야 할 죄의 자국을 남긴다."(교리문답)

조사심판에서 용납되어졌을 때 비로소 죄의 말소가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때는 물론 그의 죄가 영원히 말소되는 때이다."(교리문답)

"조사심판이 끝날 때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화이트, The Great Controversy)

조사심판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도 이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재자이심을 반박하는 격이 된다.

안식일교도들이 죄사함과 죄의 말소 사이에 굿는 구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안도감을 위태롭게 하며, 누구든지 자기의 임종 때까지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 8. 교 회 관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신약교회의 일반적 기독교적 해석은 본질상으로 같으며 단지 때에 따라서만 다르다는 것이다.(예배의 형태)

신구약에 있어서 교회간의 형태적 차이마저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그 날은 결코 변경할 수 없으며 음식에 관한 율법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며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배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십일조는 바쳐야만 되고, 할례와 유월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들은 제7일을 지키는 대신에 제1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로마 카톨릭 단체를 포함한 기독교의 여러 교파에 모두 흠어져 살고 있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반면에 이들은 주장하기를 신교의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선포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시며, 이 새로운 진리의 골자는 제7일을 안식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제4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7일 안식일 법'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면, 왜 성경을 거역하는 자들이 용서를 받아야 할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는 자기 모순적인 주장일 뿐이다. 결국 그들은 기성교회에 대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바벨론의 음녀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성교회와 갈라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안식일교운동의 원래 시조인 윌리엄 밀러(W.Miller)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세례를 받으려면 다른 모든 교회를 배척하고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서는 안식일교가 '마지막 교회'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짐승이라는 것이다.

## 9. 내 세 관

밀러(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함)에 의거하면 2300년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앞서 경과된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의 계산이 시작된 때가 B.C.457년이라고 생각했다.

B.C 457년 + 2300년 = A.D.1843년, 재림날짜 후에 그는 그의 계산을 1844년으로 수정했으나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자 그는 전체적인 구도를 부인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지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의 지성소에 오셔서 그곳을 정결케 하시고 조사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누가 참된 크리스찬인가를 보시기 위해 심령을 감찰하시기 시작하셨다 한다.

"하늘의 지성소에서의 심판작업은 1844년에 시작되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인간의 시험을 끝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위에 놓으실 것이다. 곧 그가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또 그의 살아있는 백성과 죽은 영혼들은 이 부활 때까지 죽음에서 잠자고 있다."  
(안식교의 기본원리)

## 10. 구 원 관

안식일교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위의 주장을 보면 기독교인들과 동일하다고 속단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조사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며 그 조사심판대를 통과하려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며 저들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결국 은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와 율법이 구원의 중대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안식일 시험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 <문 제>

### 1. 안식일 문제

개신교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의 일부로는 생각되지만 구약의 토요일(안식)이 그대로 바뀐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 안식일교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시록 14:9-12을 인용하며, "안식일의 회복이 지적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원래 조셉 베이츠는 제1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조금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지금,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믿음이 깊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려면 제1일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일성수가 세상의 법률로서 강요될 것이라며, 세상은 참 안식일의 의무에 대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에 제7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제7일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의 안식일인 제7일도 성회요, 첫날(주일)도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며 첫날에 모이라고 명령이 있으며,(레 23:7) 그러므로 첫날도 안식하고 제 팔일(첫날)도 안식하였다.(레 23:39)

신약의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떤으며(행20:7) 매주일 첫날에 헌금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은 안식일이요 부활하신 날은 첫날이다.

요한은 이 첫날을 주의 날(계 1:10) 즉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였다.

(계1:10의 '주의 날'을 안식일교에서는 토요일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수님이 주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으며(요20:1), 그래서 첫째 날을 이제부터 지켜야 할 날로 정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의 그 첫날 저녁에 열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다음 주 첫 날에도 예수님은 열 한명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요20:26) 약속된 성령 강림도 주의 첫날에 이행되었다.(행2:1)

그 주의 첫날에 베드로에 의한 최초의 복음설교가 있었으며(행2:4), 3000명이 회심세례를 받았다(행2:41), 드로아에서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고,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했다.

안식일교에서는 사도행전의 '주일의 첫날'은 토요일 해질 때 시작해서 일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누가가 유대식의 계산법을 따르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자정에서 자정까지의 로마식의 계산방법을 쓰고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는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의식과 신앙생활의 일면을 전해주는 2세기경의 문서인 디다케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매주 첫날인<주의 날>을 특별한 날로 알아 이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떤며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됐다.

그 후 콘스탄틴대제는 칙령을 통해 일요일에 쉰다는 사상을 부각시켰다.

안식일교는 주일을 천주교 교황이 공포한 우상숭배의 날과 이교도들의 태양숭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조사심판 교리

안식일교 시종일관 조사심판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밀러의 다니엘 8:4의 해석에 기인한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교의 조사심판교리를 위한 예시인가.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시인가 살펴보자.

히브리서 10:10-12의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린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함을 나타낸다.(히브리서 9:1-7,9:1, 9:25-26)

히브리서 6:20의 예수께서 휘장 안(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이 1844년에 들어가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들어갔느니라」는 원어인 '에이셀텐'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었으므로 만일 예수께서 1844년에야 들어오셔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형으로 가정할 때) 조사심판 전에 죽은 자와 그 후에 죽은자들의 구원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 3. 2300주야 문제

안식일교에서는 1844년 10월 22일이 그들의 교리적 핵심을 이루는 분기점이지만 기성교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력 중의 지나간 한 날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데서 은혜의 기간이라 하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라는 것이다.

안식일교인들이 이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윌리엄 밀러가 이 날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예수재림의 날이 아니라 그녀의 환상 중에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구는 다니엘 8:14,9:25, 에스라 7:11-26등으로 다니엘 8:14는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서 "그가 네게 이르되 2천3백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기록됐고 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 9:25의 예루살렘을 증진하라는 말과 연결시켰으며 그것을 다시 에스라 7:11-26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왕의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와 연결시켰다.

바로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내려진 때를 B.C.457년이 되는데 그 해가 바로 화이트 부인이 환상을 본 해가 되는 것이다.

다니엘 9:25의 성전축령에 대한 말에 에스라 7:11-26에 내린 아닥사스다왕의 조서에 대한 언급이며 또 에스라 7:11-26의 조서가 성전축령을 입증하면 안식일교의 주장대로 그 연대가 B.C.457년이 맞게 된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식일교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증인에서도 같은 숫자 계산 놀음을 하고 있다. 그들이 겔4:6에서 1일을 1년으로 본 것은 그곳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4. 두 개의 구원문제(큰 구원, 영원한 구원)

큰 구원이란,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영원한 구원이란, 율법을 지키므로 얻어지는 구원으로서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구원을 말한다.

이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며 안식일교에서 두 개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원화시켰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구들을 열거하고 있다.(약 2:24, 히 5:9, 7:25, 롬 13:11, 눅 21:28)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자를 삼으시고(로마서 8:15-23)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양자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아들의 권세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로워진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 5. 영혼소멸설

안식일교도들은 영혼소멸설을 주장하며 지옥을 불필요로 하는 여호와와 증인들과 동일하다.

그들은 사단이 영혼불멸설과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후에 성도들은 낙원에 가고(살전 4:16-28) 불신자들은 음부에 머물다가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 백보좌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지우고 만다고 주장한다.

(계 20:5-15)

## 6. 하늘나라

안식일교는 하늘나라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한다. 그 안에 정결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정결케 해야 하는가?(행 3:19, 단 8:14, 엡 1:9)

#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몰몬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몰몬교)는 1830년 미국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요셉 스미스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며, 신·구약성서 외에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들었다는 <몰몬경(The Book of Mormon)>과 기타 계시의 집대성이라며 <교의와 성약(Doctrine & Covenant)> <값진 진주(The Pearl of Great Price)>등을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믿는 점 등은 정통 그리스도교와 같으나,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별히 나타나심, <몰몬경>, 시간 및 공간을 무한한 것이라 하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점 등, 이단적이며 그노시스 주의적이다. 몰몬 교인은 12세가 지나면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는데, 전문적인 성직자는 없다.

(※그노시스(Gnosis)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은 육체를 초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노시스파의 구원에 대한 핵심 사상이다. = 영지주의)

1843년 스미스는 계시에 따라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 하여 중혼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1844년 그는 군중에 의해서 살해된 데 이어, 상당수의 교인이 살해되거나 피신하는 사태를 빚었다. 중혼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금하였고, 교회에서도 95년 중혼을 금지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중혼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중혼 :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하는 것)

스미스의 후계자가 된 브리감 영이 1847년 본부를 로키산맥 너머의 유타주 솔트레이크로 옮긴 후 30년간 교세를 크게 확장, 유타주는 모르몬주로 불릴 만큼 인구의 70% 이상이 신자가 되었으며, 58년 미국내의 신자 수는 100만을 넘었다.(2019년 약1600만명)

## 1. 몰몬교의 역사적 배경

### 1) 몰몬교 역사

- ① 몰몬교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 2세 창설.
- ② 몰몬교의 지도자: 브링함 영.
- ③ 몰몬교의 대관장: 스펜서 W 김볼.

### 2) 몰몬경

몰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천사가 가르쳐 준 곳에서 찾은 ‘책’이라고 하고있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가 못되고 요셉 스미스가 받은 ‘몰몬경’과 ‘교리성약’ 및 ‘값진 진주’가 구원의 안내서이므로 몰몬경을 경전으로 삼는다

그러나 몰몬교인들이 주장하는 몰몬경에 대한 역사적 자료에 나타나는 종족들, 대양의 항해, 신세계의 도착, 새긴 금속판들, 새 애굽 상형문자 등의 술한 문제들이 비역사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제로 금속판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요,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이다.

## 2. 몰몬경의 교리

### 1)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개체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은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다. 이것은 기독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이다. 기독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며 삼위를 말한다. 몰몬교의 신앙개조 1항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고 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기독교회의 삼위일체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믿는 신은 복수이며 하나님의 영성을 부인한다.

성부는 인간처럼 육신을 가졌으며, 성자 역시 육신을 입으셨다. 그리고 성령은 육신을 갖지 않고 하나의 영적 실체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는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몰몬교는 신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한다. 그들은 신격에 여성 곧 어머니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늘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고 하며, 그들은 영적 자녀들을 전 세상에서 낳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영적 자녀 가운데 장자이며, 아담은 천사장 미가엘로서 존재한 신이었다고 한다.

### 2) 인간의 기원과 죄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했다.

모세서 1:39은,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로 있다가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몰몬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본다. 그리고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본다.

인간은 영적인 실체를 지닌 개개의 존재로서 그는 지상에 오기 전에도 영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2:7)

그리고 몰몬교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

### 3)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그들은 요한복음 1:1의 그리스도의 실제적 신성을 가르치는 구절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태초에 예수가 계셨으니 예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곧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고쳐서 번역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의로움이나 영에 관계되는 면에서 죽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 한다. 이것은 복음의 의식과 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된다고 한다.

#### 4) 구원과 교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설명 하니라"했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회의 구원론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다.

그러나 몰몬교는 주장하기를, 순종함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천국 문은 열려 있으나 복음에 요구된 율법과 규례들을 각자가 원해서 순종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고,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지 못함을 뜻한다.

### 3. 몰몬교의 현황과 전망

몰몬교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이단이다.

그들은 젊은 층을 깊숙이 파고들며 호별방문을 통한 포교를 한다. 최근에 몰몬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몰몬교회를 시도하고 있다.

#### 1) 몰몬교의 예배의식과 생활

① 예배의식 - 몰몬교는 예배보다는 교육적인 면을 더 치중한다.

그들은 각 집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은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분반공부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권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남자만 모이는 예배의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몰몬교의 발전을 토론한다. 반면에 또한 여자들만 모이는 "상호부조회"도 있다.

② 성찬식 - 몰몬교의 성찬식은 매주일 거행하는데 8세 이상이면 모두가 참여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26:29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포도즙 대신 물을 사용한다.

③ 침례의 자격과 순서

몰몬교의 침례의식은 8세 이상된 몰몬교 인으로서 여섯과의 기초 공부를 마친 후 지부장이 접견하고 신앙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침례를 베푼다

#### ④ 몰몬교인의 생활

그들은 신전예식에 참여하는 생활을 원한다. 다음으로 선교사 생활을 희망한다.

몰몬교의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 2년간 무보수로 해외 포교를 자원한다.

그들의 자격은 고졸 이상 대졸로서 포교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몰몬교인은 십일조 생활을 한다. 이것은 성 신권을 위하여 그들이 지키는 영구한 율법이다.

그리고 십일조의 사용 목적은 "나의 집을 건축하며, 시온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신권을 위하여, 나의 교회의 빛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니라"고 한다.

몰몬교의 실생활에 있어서 그들은 술을 금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흥차나 커피 등의 뜨거운 음료도 사용하지 않으며, 야채와 과실을 좋아하며, 육류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몰몬교는 자연히 그들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2) 몰몬교의 의식 제도

몰몬교는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의식제도가 있다.

그것은 신전예식, 신권제도, 침례의식, 안수례 등이다.

##### ① 신전예식

신전은 특수한 성격을 띤 거룩한 장소로서 신성시하며 몰몬교의 집회소인 스테이크나 와드 또는 지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하며 구조와 기능 면에서 판이한 것이다.

몰몬교의 신전에는 특별 추천서를 받은 몰몬교의 회원들만이 신전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신적 특권이 부여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주로 행하는 의식들은 결혼식, 침례식, 임직,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등이다.

몰몬교의 신전결혼은 현세와 내세까지의 유일한 결혼이며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은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 ② 침례의식

몰몬교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또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함을 받으나 믿지 않는 자와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

몰몬교는 침례를 속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또한 신권을 가진 자에게서 받아야 된다고 한다.

몰몬교는 세례의 적정한 양식은 침례라고 한다. 그들은 물에 온 몸을 담그는 것이 침례의 본질적인 것이요, 이것을 포기함은 침례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한다.

##### ③ 안수례

몰몬교는 성령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거행한다.